

### /지역 단신/

#### 고창 복분자냉면 출시

고창복분자냉면이 최근 출시됐다. 복분자 냉면은 고창복분자만을 엄선하여 복분자의 독특한 색과 향을 담아 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는 영양만점 식품으로 우리의 미각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연간 1조원의 냉면시장에 1% 대의 시장 점유율을 목표로 냉면시장을 개척해 나갔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 복분자 재배면적은 총 1천270ha 4천 628 재배농가로 연간 1천억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고창=김준원기자 jwkim@

#### 장성군, '장성장학회'에 2억원 출연

장성군은 지난 10일 '재단법인 장성장학회'에 군비 2억원을 출연했다.

군은 올해부터 매년 2억원의 군비를 출연, 2009년까지 20억원의 장학기금을 확충해 지역발전의 장기적인 비전인 인재육성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1992년에 설립된 재단법인 장성장학회는 14년에 걸쳐 455명의 대학생과 고등학생에게 6억3천 6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지역 인재육성에 기여해 왔다.

군 관계자는 “최근 들어 금리인하와 기금출연 저조로 수혜대상 축소 등 장학회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유 군수 취임후 신명문 교육특구를 만들기 위한 시책으로 조기 장학기금 출연을 적극 검토했다”고 말했다. /장성=고재민기자 jbg@

#### 해남보건소 노인대상 돌보기 보급

해남군보건소는 14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노안으로 시력이 약화된 노인 200명에게 돌보기를 보급하기로 하고, 보건소를 비롯한 보건지소, 진료소 32개 방문보건팀이 대상 가정을 방문한다.

이번에 보급되는 돌보기는 해남을 신안리 출신 재경 해남향우 윤주연(67)씨가 군에 기탁한 것으로 기탁자의 뜻에 따라 취약계층에게 지원됐다.

한편 해남군 보건소는 지난 7월 저소득 노인 252명에게 노인건강검진을 실시하여 130명(44%)의 안과 질환자를 조기 발견하였으며, 실명예방재단 및 관내 안과병원과 연계하여 무료개안 수술과 약물치료를 실시하여 전원의 시력을 회복시켰다. /해남=박정욱기자 jopark@

#### '농업현장 중심 농촌진흥 사업'

##### 각 도 농기원장 업무협의회 논의



'농업현장 고객중심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각 도 농업기술원장 업무협의회가 지난 11일 구례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렸다.

김인식 농촌진흥청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각 도별 타라이트 및 탐프루트 프로젝트 추진상황과 지역별 우수사례 발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사진>

회의를 마치고 김 청장은 구례 농업기술센터 잡자리 시험사육장, 오이시험장, 지리산 야생화 특품화사업장, 마산면 향전리 친환경농업 종합시범단지를 방문했다. /송기동기자 song@

## 목포권 피서객 특수

### 8월 첫주 차량 4만3000대 몰려

### 다도해 관광객 작년보다 20% 증가

### 여객선터미널 인근 등 숙박업소 동나

목포시가 피서철 관광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8월 들어서면서 목포여객선터미널과 북항 인근 도로에는 신안 도서 인근 섬으로 피서를 떠나는 차량들로 연일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무안영업소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서해안고속도로를 이용해 목포방향으로 진입한 차량은 총 4만 3천여 대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천여

대가 증가한 것으로, 일일 평균 1천여 대가 목포권을 더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객선을 이용한 관광객들도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동안 목포여객선터미널과 북항 선착장을 통해 다도해를 찾은 피서객은 8만3천여명으로, 지난해 6만여 명에 비해 20% 가량 증가했다.

이로 인해 여객선터미널과 북항 주변 식당들은 모처럼 활기가 넘치고 있으며,

하당 숙박업계도 동반 특수를 누리며 오후 8시 이전에 모두 방이 동나는 진풍경이 곳곳에서 연출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 7월 수도권과 강원지방의 폭우 여파로 피서객들이 피해 복구 현장을 피해 제주도나 홍도·흑산도 등 청정한 섬 지역 해수욕장을 선호한데다가, 무안 연꽃 축제와 신안 갯벌 올림피아드 축제,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등이 잇따라 열리면서 피서객과 함께 축제를 즐기려는 관광객들이 목포권으로 집중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S호텔 관계자는 “8월 들어서면서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지역 손님이 60% 이상 차지하고 있다”며 “서남권에서 축제들이 잇따라 열리면서 관광객 유치에 한 몫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목포=임영준기자 lyc@



####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제 29회 진도 신비의 바닷길축제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고군면 회동리와 의신면 모도리 바닷길 현장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 “다산 저서 체계적 연구 필요”

### 70년대 이후 강진서만 19종 추가 발굴... 국가차원 조사 시급

다산 정약용의 저술이 최근에다 강진 지역을 중심으로 잇따라 발굴되면서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970년대 이후 현재까지 강진에서 새로 발견된 저서만 여유당 속집 43권을 비롯해 종류만 19종의 서책 등이 꾸준

히 발굴되고 있다. 여기에 1970년대 이후 발굴된 저서를 합하고 제목만 알려져 있고 아직 찾아내지 못한 '경세유표 별본'과 '동다기' 등을 합할 경우 다산의 저서가 600여권이 넘을 것으로 강진군은 추정하고 있다. 강진군과 전남도는 다산 저서에 대한

발굴작업을 계속해 새로운 저서가 발견될 경우 이를 모두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그동안 다산의 저서는 경서 241권, 문집 268권, 잡문전편 36권, 잡문후편 24권 등 569권으로 알려져 있었다.

전남도 양광식 문화재 전문위원은 “잇따른 저서 발견을 계기로 다산사상의 넓이와 깊이에 대한 재조명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며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자료조사와 발굴연구 등의 후속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강진=이병철기자 mood@

## 화순 가로수 부실식재 의혹

### 신기~수만리 군도변 빛나무 300여그루 대부분 고사

#### 현선 “하자보수 받겠다”

화순군 화순읍 신기~수만간 군도변에 심어진 가로수들이 대부분 고사해 관리 감독이 허술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화순군은 지난 4월 신기~수만간 도로변에 6천여만원을 들여 빛나무 300그루를 심었으나 지난 5월께 바람으로 대부분의 가로수가 쓰러져 부실식재 의혹을 사고 있다.

주민들은 애초부터 삼가지지대가 형식적으로 세워져 풀풍에 아무런 버팀목 역할을 하지 못한 것 아니냐며 군의 가로수 관리가 허술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삼가지지대를 복원한 뒤 가로수를 다시 심었으나 폭염이 계속되면서 상당수 빛나무들이 말라 죽어가고 있다.

군관계자는 “풀풍으로 인해 나무가 쓰러졌지만 그때 바로 원상복구를 했고 그



화순읍 신기~수만간 도로변에 심어진 가로수들이 관리소홀로 말라죽고 있다.

래도 죽은 나무들은 올 가을 식재를 담당했던 업체에 하자보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해명 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 완도에 '산림박물관'

### 102억 들여 10월 착공

완도에 '산림박물관'이 건립된다.

전남도에 따르면 국·도비 등 모두 102억원을 들여 완도수목원내 5천평 부지에 350평 규모의 전시공간 등을 갖춘 전통 한옥 목구조 형태의 산림박물관을 오는 10월 착공, 2008년 말 완공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 산림사료의 보존 및 전시와 도민들에게 친근감 있는 산림체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박물관을 짓기로 했다”면서 “특히 이 박물관은 난대림의 생성과 이용, 보존가치 등을 중점적으로 전시하게 되는 등 난대림 전문 박물관으로 조성하게 된다”고 밝혔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 해남 송지면 신정배수장 조기완공

## 저지대 들녘 침수 걱정 '끝'

### 645ha 상습피해 벗어 안도

매년 상습 침수 피해를 입던 해남 송지면 신정 들녘이 침수 걱정에서 해방됐다.

한국농촌공사 해남지사(지사장 임유식)는 13일 “최근 송지면 신정리 신정배수장 건립공사를 조기에 끝내고 시험가동을 거쳐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면서 “다가 올 태풍과 집중호우시 침수 걱정이 사라지게 됐다”고 밝혔다.

신정배수장은 배수 펌프 4대가 설

치돼 초당 6의 유입수를 처리할 수 있으며 공사도 예초 보다 5개월 앞당겨 졌다.

해남지사 관계자는 “경수배수장에 이어 신정배수장까지 완공돼 조위 상승시 바다로 물이 빠지지 않아 적은 양의 비에도 침수피해를 입던 이 일대 저지대 간척지 645ha가 상습 피해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2003년 11월 배수개선사업 공사에 들어간 한국농촌공사 해남지사는 1차로 배수장 2개와 배수분배수소 시설을 준공했다.

/해남=박정욱기자 jopark@

#### 수자원소, 해수담수화시설 공동 급수전 확장

## 신안 홍도 주민 식수 걱정 '끝'

천혜의 사계절 해상 관광지인 신안군 흑산면 홍도 1구 주민들의 물 걱정이 사라졌다.

한국수자원공사 여수권관리단은 “최근 홍도 해수담수화시설 공동급수전 확장사업을 끝내고 양질의 수돗물을 저렴한 요금으로 확대 공급하면서 홍도 물 걱정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여수권관리단은 7-14가구를 하나로 묶는 공동급수전 8곳을 설치해 수돗물을 20가구에서, 107가구로 확대 공급하고 있다.

물값도 t당 460원으로 지난 해 보

다 5배 이상 낮아져 물 사용에 따른 주민 부담도 크게 줄었다.

여수권관리단은 “기술력이 부족한 주민들이 해수담수화 시설을 운영하면서 수질에 대한 안전성과 높은 운영비, 물값 등으로 이용을 기피해 왔으나 지난 해부터 수자원공사가 이 담수화시설을 위탁 운영하면서 물값을 낮추고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를 하는 등의 개선 노력으로 담수화시설이 도서 식수원으로서 빛을 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 보성 봉산 친환경농단 '광역방제기' 도입

보성군은 지난 10일 보성을 봉산 친환경농업단지 들녘에서 광역방제기를 이용한 친환경농자재(키티네오액)살포 연시회를 가졌다. <사진>

군의 지원사업(2억원)으로 공급된 농업용 광역방제기는 하루 90ha를 방제할

수 있어 인력 및 생산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성군의 대표 브랜드인 녹차미인보성쌀과 동치 울버쌀, 녹차배달지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보성=인규원기자 gjahn@

#### '교사에 폭언' 운전기사 되레 큰소리



○~함평 골프교 버스기사가 골프교사에게 폭언을 해 “교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으나, 학교측은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버스기사와 해당교사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등 임시 봉합에만 급급.

○~지난달 12일 인근지역 골프장에서 연습을 끝내고 학생 7명과 귀교하기 위해 무더위 속에서 30여 분 이상 버스를

기다렸던 인솔교사 J씨는 버스 농담 도중에 항의했으나 기사 A씨가 사과하는 커녕 J교사에게 폭언을 하고 교장과 교감에게도 “J교사를 그냥 두면 안된다고 오히려 큰소리를 쳤다”는 것.

○-인솔 교사 J씨는 “학교 버스가 늦게 와 기사에게 전화를 걸어 빨리 오라고 했을 뿐인데, 오히려 학생들 앞에서 함의를 종용하는 등 임시 봉합에만 급급.”

/함평=박정욱기자 pyj4079@

**편안하고 깨끗한 고급객실!**

그 명실 그대로

**25년 고객사랑!**

더 큰 감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좋은 음식 만들기 25년!!**

신선한 고급재료, 맛있는 음식!

**금수향 관광호텔 이리조트**